



함께 푸는 미스터리 <IV>해답

비디오테이프 미스터리

유경감이 녹화기의 단추를 누르고 테이프를 다시 상연하기 시작할 때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यो.” 라고 말 하면서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우선 각자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장면과 장남 천일룡씨가 필름을 촬영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벽에 걸린 거울에서 볼 수 있지요.

자아, 이제 오주방장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쟁반에 무엇이 담겼는지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오. 이때 카메라의 초점은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클로즈업하는 한편 주방장이 각자 앞에 찬 샴페인글라스를 놓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다시 서 있는 3남 천삼룡씨에게 주방장이 샴페인병을 건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천삼룡씨가 샴페인을 부으려고 할 때 그의 부인 박동숙씨가 자기의 술잔과 천금석씨의 술잔을 바꿔치기하는 클로즈업장면을 유의해 보시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교수는 유경감을 쳐다본 뒤 말을 이었다.

“자, 이제부터 천금석씨가 어떻게 살해되었는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천삼룡씨는 주방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술병에서 천금석씨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다음 클로즈업장면은 천삼룡씨가 아버지 천금석씨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의 처 박동숙씨가 시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천삼룡씨가 천금석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가 주방장과 병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 천금석씨는 볼 수 없어요. 천삼룡씨는 새 술병으로 만며느리 이금자씨의 술잔에 술을 따른 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 술병을 주방장에게 건네줍니다. 천금석씨가 독이 든 술잔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술을 든 뒤 주방장은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첫번째 술병을 가지고 방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천금석씨를 독살한 것은 주방장과 천삼룡씨라는 말씀입니까?” 유경감이 물었다.

“유경감은 한가지 잊은 것이 있군요.” 최교수는 말을 이었다.

“셋째며느리 박동숙씨, 2남 천이룡 그리고 그의 부인 김은혜씨는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술병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

나 천금석씨는 셋째며느리 박동숙씨가 그의 주의를 따돌렸기 때문에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남 천일룡씨는 카메라를 들여다 보고 있어서 우리가 본 것 외에는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바꿔치기는 만며느리 이금자씨 등 뒤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경감은 눈살을 찌푸렸다.

최교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장남 천일룡씨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음모에 끼어들었요. 이들이 청산가리를 택한 것은 아마도 만며느리 이금자씨가 이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던 것 같소. 청산가리를 이금자씨의 가게에서 훔쳤을지도 모르지요. 이들은 또 그의 남편의 촬영기술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음모를 꾸민 이유는 천금석씨가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막자는 데서 나왔어요.”

유경감이 오주방장을 살인죄로 입건하고 취조에 들어가자 그는 자백하면서 다른 연루자들의 이름도 불었다. 이들은 최교수가 추리하던 대로 음모를 꾸몄었다. 천삼룡씨 부부와 천이룡씨 부부도 기소되어 재판 대기중이다. **ST**